

[독후감]

■ 리미화

# 직장생활의 지혜를 철학적 사유에서 찾다



철학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2025년 새해에 아마구치 슈가 저술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철학이라는 무거운 의미를 말하는 책은 처음 접하는지라 솔직히 독서를 시작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작가가 우리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레시로 철학 초보자들도 읽기 쉽게 만든 책이라 무겁게 시작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철학의 깊은 뜻을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로 풀어주어 철학은 오래되고 예전에만 사용했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철학과 직장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50가지 핵심 철학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하는 데 어떤 작용이 있는지를 지적했다.

철학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것이 바로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5단계일 것이다. 인간의 기본욕구는 5단계로 구성되었는데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4단계는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철학자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중 가장 우위에 있는 자아실현을 이룬 많은 역사인물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밝혔는데 그중 대부분은 고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인맥이 넓지 않다고 정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조금함을 가질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굳이 '넓고 얇은'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레 느꼈다. 소셜포비아(社交恐惧症)로서 이런 매슬로의 주장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었다. 나이가 넓은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대신 나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고 또 사회에 기여가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설득보다는 리해, 리해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설득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로고스(논리)', '에토스(윤리도덕)', '파토스(열정)'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논리가 맞아야도 그에 따른 윤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본인이 '파토스(열정)'를 보여줄 때 타인이 열정에 젖어들어 공감이 가능하며 사람을 매료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고 설명했

다. 이를 실제 직장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조직의 리더라면 논리도 맞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책은 철학이 어렵고 딱딱하며 실제로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지적한다. 철학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데 바로 이는 직장에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프로젝트 방안이나 팀간의 의견 차이에 직면하게 될 때 주체적인 사고를 갖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부서에서 신제품 보급 전략을 토론했을 때 다들 처음에는 예전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옮겨오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철학에 대해 료해가 있는 직원이라면 주체적인 사고를 하면서 시장환경의 변화, 목표 소비자의 수요 등 요소들을 생각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더욱 혁신적이고도 목적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레시로부터 알 수 있다 싶어 철학이 제창하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직장에서 상식 밖의 미래를 돌파하고 더욱 우수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아마구치 슈는 철학적 사유가 직장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탬 수 있다고 적지 않게 지적했는데 그럼 우리가 철학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의 이름이다. 즉 대립하는 사고를 서로 부딪쳐 투쟁시킴으로써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론이다.

변증법적 사고는 직장 업무에서 발

생하는 난제도 해결해준다. 작가는 책에서 어떻게 변증법적 사고를 활용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직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전면적이고도 연계적이며 발전적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사고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수요를 발견하거나 작업 과정을 새로 개선하는 계기와 같은 숨겨진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설명을 통해 독자들이 어떻게 모순에서 변증법적 방법으로 균형점을 찾아 사업의 진전을 추진할 것인가를 지도한다.

직장생활에서 철학은 우리와 밀접히 연결되어있다. 명확한 가치관을 라 침판과 같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리익의 유혹이나 도덕적 곤경에 직면했을 때 명확한 가치관을 지킨다면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필자는 철학이 직업계획, 인간관계 처리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한다는 점을 배웠다. 나이가 이 책을 통해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나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더우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철학은 리론지식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직장생활의 지혜인바 복잡하고도 다양한 직장환경에서 곤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독서 후기를 남기고 싶다.

## 《환생》

삶, 지식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 출국으로 인한 조선훈들의 가정비극 등도 그려져있다. '생명'이라는 무거운 주제와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황, 고민과 애환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소설집의 작가인 채운산은 중국작가협회 회원이자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겸 산문창작위원회 주임이다.

선후로 《지부생활》잡지사 편집, 《청년생활》부주필, 《연변문학》

주필 등 직무를 력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연변인민출판사 문예편집부의 주임으로 있다.

작품 활동으로는 장편소설 《속명》, 중단편소설집 《두만강에 살아리었다》를 출간한 적 있다.

뿐더러 《길림신문》두만강문학상 소설본상, 《연변문학》문학상, 연변작가협회 '김학철문학상', 제1회 동북 3성(북경) 조선문간행물 우수주필(총편집)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김기해기자

왜 , 무엇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할가?

—어쩌면 가장 최선의 대답은 바로...

◎ 발자국이 미치지 못하는 곳, 문자는 가능하다

“책을 읽지 않으면 만리를 가도 우편배달부에 불과하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독서는 단지 현실의 여행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권의 책 만큼 우리를 광대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전함은 없다.”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문자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은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책 속에 꼭 황금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이 있다

읽었던 모든 책들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게 한다. 독서의 진정한 의의는 아마도 생활의 감수로 책을 읽고 책 읽기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데 있지 않을까.

독서, 즉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게 하고 부단히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 정진하고 싶을수록 책 읽기를 통한 축적과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

독서를 해야만이 끊임없이 자아를 제고할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자신의 손안에 장악할 수 있다. 독서가 꼭 운명을 개변시킨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독서는 우리가 운명을 더 잘 대면할 수 있게 해준다.

막막함을 쫓아내거나 평범함에 대항하거나를 막론하고 독서는 모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자신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주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을 읽는다면 독서는 조금씩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줄은 물론 더 좋은 자신을 수확하게 할 것이다.

◎ 독서는 설명 수렁에 폭 빠졌다 하더라도 별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어느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책은 가장 인내심 있고 가장 즐거운 동반자이다. 책은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독서는 한 사람에게 변화할 수 있는 저력을 주어 더욱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추동한다.

모든 책은 임의의 문과도 같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독서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에게 인생 역습의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다.

꾸준히 읽기만 한다면 읽었던 그 책들은 결국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재능을 펼쳐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우리가 책에 투자한 모든 시간은 그 언젠가 우리에게 무언가로 되돌려준다.

독서를 견지하면 설명 수렁에 폭 빠졌다 하더라도 별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 독서는 자신을 넓혀가는 과정

책을 많이 읽을수록 마음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세상의 불완전함과 타인의 부족함을 포용할 줄 알게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어 사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읽었던 많은 책들이 모두 잊혀져버려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여전히 잠재해 존재하며 기질에서, 말투에서, 흉금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생활과 문장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독서는 바로 자신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흉금이 넓어지며 더불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 독서의 고달픔 원망 말아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독서만이 유일한 출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일반인들에게 독서는 곧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현실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외에 또 다른 더욱 산뜻하고 밝은 곳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독서가 바로 그 세계로 통하는 탄탄대로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독서가 고달프다고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길이다.

독서에 심혈을 기울여 책의 두께로 자신의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신의 인생의 품격을 높인다.

/ 신화사

## [연변작가협회 추천 도서]



《환생》은 연변작가협회 계획출판 항목의 지원으로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중단편소설집이다.

중단편소설집 《환생》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쳐 불안과 혼돈, 선택을 거치며 자기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회귀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결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소설집은 인간의 실존적 의미와 생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한 가정의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통한 디아스포라의

## ‘선택만 하면 대신 결산’... 도서 고르기 활동 신나요

지난 18일,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에서는 연길시신화서점과 연합하여 ‘선택만 하면 대신 결산해줍니다’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도서 고르기 활동을 조직했다. 이번 활동은 도서관의 소장 자원을 풍부히 하고 독자들의 다양한 열독 수요를 만족시키며 독자들의 독서 흥미

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모와 아이들은 행사 과정에 높은 열의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가

했다. 30여명의 어린이 독자들은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학부모와 함께 자신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다.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또 책의 내용과 질,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연령 특징에 부합되면서도 교육적 의의가 있는 량질의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인도했다. 더불어 아이들로 하여금 책 선택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교류도 증진시켰다.

행사에서 모든 참여자는 도서관 매카즈와 소정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번 활동은 상호가 혜택을 향수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독자의 직접적인 책 선택을 통해 독자의 열독 수요를 좀더 정확하게 엿볼 수 있었던 기회인 동시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함으로써 화목한 교류는 물론 아이들의 량호한 독서 습관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 김기해기자 / 사진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전문가와 학자들

## 고서 정리와 고문헌 학과 발전 함께 토론

북경사범대학 역사학원,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주최한 《100년 중국 고서 정리와 고문헌 학과 발전 연구》(百年中国古籍整理与古文献学发展研究) 출판 및 학술 세미나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우리 나라 고서 정리 사업의 발전과 고문헌 학과 건설 등 주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교류와 연구토론을 진행했다.

소개에 따르면 《100년 중국 고서 정리와 고문헌 학과 발전 연구》는 총 5권 7책(5卷7册)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학술사의 형식을 통해 처음으로 100년간(1911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나라 고서 정리와 고문헌 학과의 발전 과정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운영 기제와 정리 연구 방식을 천명하였으며 고서 정리와 고문헌학 연구 성과, 경험교훈을 총화하였다. 이는 고문헌학의 학과 체계와 학술 체계를 가일층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 책은 역사로부터 리론을 도출하는 것을 견지하여 고서 정리 성과와 문헌학 리론의 변화를 포함한 백년래의 문헌학 성과에 대한 정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 학과에 대한 체계적인 총화와 전망적인 사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심도있게 활용하고 계승을 토대로 심화와 혁신을 가하면서 고서 정리와 고문헌학의 리론 체계를 구축, 완비하는 면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신화사